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심리자본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에 대한 융합적 연구

조미숙¹, 박정현², 장경애^{3*}

¹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²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³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Freshmen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Mi-Sook Cho¹, Jung-hyun Park², Kyeong-Ae Jang^{3*}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³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부산, 울산, 대구광역시 지역의 대학교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대학 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변인들의 결과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의 요인에서 모두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은 낙관주의($p < 0.001$)와 자기효능감($p < 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개인정서적응과 대학환경적응은 낙관주의($p < 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신입생, 치위생(학)과, 긍정심리자본, 대학생활 적응,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융합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freshmen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universities in Daegu, Busan and Ulsan. The major variables including hope, resilience, optimism, self-efficacy,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and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all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 influential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ollege life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and social adapt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optimism($p < .001$) and self-efficacy($p < .001$), while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and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optimism($p < .001$).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that can improv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pply them systematically to the educational field.

Key Words : Freshmen, Dental hygiene departm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ollege life adaptation, Optimism, Self-efficacy, Convergence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in 2019.

*Corresponding Author : Kyeong-Ae Jang(jka@silla.ac.kr)

Received August 26,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September 23,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국민의 높은 교육열의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취학률은 2018년 67.6%로 나타났다. 2017년 통계청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에 의하면 15세-19세 취학률은 OECD 평균 85%보다 높은 87%로 나타났다[1].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며, 고등학생 때까지는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생활방식을 수행해 오다가 대학교 입학과 더불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욕구가 높아진다. 또한 부모로부터 자아 정체감의 확립, 심리적 독립, 진로 정체성 강화 등의 다양한 발달 과업의 도전을 받게 된다[2]. 그러나 스스로 청년이나 성인으로도 생각하지 않지만 대학생활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3]. 따라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은 성인기로 이행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반응 의미하며, 그 구성요소로 4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학업적인 요구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학업적응과 대학생활 중 친구관계에 있어 학업적 교류 및 공동체 생활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응, 일반적인 심리문제와 신체적 건강문제를 측정하는 개인정서 적응이 있으며, 재학 중에 대학에 대한 애착과 질적 부분에 대한 만족도, 학업목표 몰입 정도를 측정하는 대학환경적응으로 분류할 수 있다[4].

대학생활적응은 단순하게 지적인 발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사회인으로써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대학생 시기의 있어서 대학생활 적응은 성공적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5].

대학신입생은 후기 청소년기로 새로운 환경인 대학생활에 적응을 하는 시기이며,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하는 시기로써 신입생의 긍정적인 심리가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 될 뿐만 아니라 추후 성공적인 취업 및 성인으로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6]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긍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심리상태로 Seligman[7]의 긍정심리학을 기반이 되어 긍정적 행동의 연구에서 유래되었다. 긍정심리자본은 4가지 하

위요소로 도전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와 목표를 정의하는 희망,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복원력, 성공에 대한 긍정적 귀인을 만드는 낙관주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서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9]. 선행연구들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부요인인 낙관주의와 복원력,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적응력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0]에서도 자존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에서도 낙관적인 태도, 자신감, 감정통제를 하부요인으로 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논문들을 볼 때 특히 대학생들의 자기조절능력과 자신감 등 긍정적인 사고는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들이다.

치위생(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부적응으로 인하여 학업능력 저하 및 중도탈락률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졸업 후에도 치과위생사의 직무인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증진 향상에 기여도가 낮을것으로 예상된다[12]. 최근 간호학 분야에서 긍정심리자본과 대학생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위생 분야에서는 긍정심리자본과 대학생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의 긍정심리자본과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알아보고,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이 대학교 생활 적응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의 긍정심리자본과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파악하고,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울산, 대구광역시 지역의 대학교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추출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 후 이해하고, 동

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2019년 5월 27일부터 2019년 6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300명 중 불성실한 설문지의 응답 자료 4명을 제외한 296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긍정심리자본은 이동섭과 최용득[13]이 사용한 연구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하위영역 요인은 희망 5문항, 복원력 5문항, 낙관주의 5문항, 자기효능감 5문항으로 총 20 문항이다. 각각의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학생활 적응은 Baker와 Siryk[4]이 사용한 연구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하위영역 요인은 학업적응 24문항, 사회적응 20 문항, 개인정서적응 15문항, 대학환경적응 15문항으로 총 67문항이다. 각각의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타당도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과 KMO값은 표본적합도를 표기하는 것으로 0.5 이상인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 는 긍정심리자본 0.826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희망 0.706, 복원력 0.663, 낙관주의 0.753, 자기효능감 0.772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은 0.914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학업적응 0.861, 사회적응 0.791, 개인정서적응 0.664, 대학환경적응 0.749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에서 검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긍정심리자본과 대학생활 적응 변인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을 독립변수로 하여 선행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의 조건 하에 최소 표본 크기는 230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명으로 선정하였고, 그 중 자료처리가 곤란한 설문지는 제외하여 29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 있어 여자 98.0%, 남자 2.0%로 나타났고, 고등학교의 유형은 일반고 92.9%, 특성화고 5.8%, 자율고 1.0%, 기타 0.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학과 선택은 스스로 73.6%, 부모님 17.6%, 선생님 4.7%, 지인 4.1%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96)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Male	6	2.0
	Female	290	98.0
High school types	General high school	275	92.9
	Specialized High School	17	5.8
	Autonomous high school	3	1.0
	Etc	1	0.3
School and department selection	Oneself	218	73.6
	Teacher	14	4.7
	Parents	52	17.6
	Acquaintance	12	4.1
Total		296	100.0

3.2 연구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

연구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은 3.44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 요인은 희망 3.63점, 자기효능감 3.41점, 복원력 3.36점, 낙관주의 3.36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의 평균은 3.24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 요인은 대학환경적응 3.48점, 사회적응 3.41점, 개인정서적응 3.11점, 학업적응 2.97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degre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Characteristic		M±S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ope	3.63±0.52
	Resilience	3.36±0.48
	Optimism	3.36±0.57
	Self-efficacy	3.41±0.58
Total		3.44±0.47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ademic adaptation	2.97±0.46
	Social adaptation	3.41±0.46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3.11±0.41
	University environment	3.48±0.52
Total		3.24±0.39

3.3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희망은 자기효능감($r=0.700, p<.01$), 복원력($r=0.654, p<.01$), 낙관주의($r=0.654, p<.01$)와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복원력은 자기효능감($r=0.694, p<.01$), 낙관주의($r=0.639, p<.01$), 사회적응($r=0.467, p<.01$)과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낙관주의는 자기효능감($r=0.718, p<.01$), 학업적응($r=0.579, p<.01$), 사회적응($r=0.571, p<.01$)과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응($r=0.589,$

$p<.01$), 학업적응($r=0.571, p<.01$), 대학환경적응($r=0.458, p<.01$)과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학업적응은 대학환경적응($r=0.683, p<.01$), 사회적응($r=0.628, p<.01$), 개인정서적응($r=0.507, p<.01$)과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적응은 대학환경적응($r=0.825, p<.01$), 개인정서적응($r=0.435, p<.01$)과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개인정서적응은 대학환경적응($r=0.451, p<.01$)과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Hope	Resilience	Optimism	Self-efficacy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University environment
Hope	-							
Resilience	.654**	-						
Optimism	.654**	.639**	-					
Self-efficacy	.700**	.694**	.718**	-				
Academic adaptation	.480**	.455**	.579**	.571**	-			
Social adaptation	.489**	.467**	.571**	.589**	.628**	-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226**	.245**	.367**	.268**	.507**	.435**	-	
University environment	.423**	.361**	.529**	.458**	.683**	.825**	.451**	-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 < .05$, ** $p < .01$, *** $p < .001$

3.4 긍정심리자본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Table 4와 같다.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p<0.001$)와 자기효능감($p<0.001$)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influential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academic adaptation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β	S.E	EXP(β)	ρ
constant	1.127	0.161		$\langle 0.001$ ***
Hope	0.051	0.061	0.058	0.405
Resilience	0.005	0.065	0.006	0.935
Optimism	0.259	0.056	0.328	$\langle 0.001$ ***
Self-efficacy	0.225	0.060	0.291	$\langle 0.001$ ***

*** $p < .001$
F=45.840, $p<0.001$, $R^2=0.378$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3.5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p<0.001$)와 자기효능감($p<0.001$)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influential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social adaptation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β	S.E	EXP(β)	ρ
constant	1.497	0.163		$\langle 0.001$ ***
Hope	0.056	0.062	0.063	0.367
Resilience	0.014	0.066	0.015	0.826
Optimism	0.227	0.057	0.282	$\langle 0.001$ ***
Self-efficacy	0.263	0.061	0.332	$\langle 0.001$ ***

*** $p < .001$
F=47.361, $p<0.001$, $R^2=0.386$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3.6 긍정심리자본이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이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6과 같다.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p < 0.001$)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influential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β	S.E	EXP(β)	p
constant	1.680	0.197		<0.001***
Hope	0.034	0.065	0.043	0.603
Resilience	0.024	0.069	0.028	0.728
Optimism	0.360	0.068	0.398	<0.001***
Self-efficacy	0.012	0.064	0.017	0.851

*** $p < .001$
 F=30.733, $p < 0.001$, $R^2=0.287$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 > .05$).

3.7 긍정심리자본이 대학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이 대학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7과 같다.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p < 0.001$)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7. The influential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university environment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β	S.E	EXP(β)	p
constant	2.239	0.172		<0.001***
Hope	0.101	0.074	0.101	0.177
Resilience	0.062	0.079	0.057	0.438
Optimism	0.259	0.060	0.364	<0.001***
Self-efficacy	0.125	0.073	0.141	0.091

*** $p < .001$
 F=11.387, $p < 0.001$, $R^2=0.135$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 > .05$).

4.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의 긍정심리자본 수준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려고 시도된 연구이다.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5점 척도로 본 결과 3.2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14]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도가 3.36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고,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학생활 적응도가 3.1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5]. 그리고 본 연구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정도는 3.24점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논문이 없어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김[16]의 연구에서 3.50점, 정 등[17]의 연구에서는 3.42점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비슷한 결과로 여겨진다.

긍정심리자본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복원력은 사회적응($r=0.467$, $p < .01$)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낙관주의는 학업적응($r=0.579$, $p < .01$), 사회적응($r=0.571$, $p < .01$)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응($r=0.589$, $p < .01$), 학업적응($r=0.571$, $p < .01$), 대학환경적응($r=0.458$, $p < .01$)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오[14]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과 상관관계 있다고 보고하였고, 박[18]은 낙관성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삶의 질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의 변인들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복원력, 낙관주의, 자기효능감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므로 본 연구를 뒷받침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 적응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에는 낙관주의와 자기효능감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서적응과 대학환경적응은 낙관주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낙관주의와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특별한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19]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학습만족에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20]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이 높아질수록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긍정적 감정을 활용하여 자신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대학생활의 적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21]등은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낙관적 태도였으며 그 외의 요인으로 자신감, 감정조절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 낙관적 태도와 감정통제 자신감 등을 하위요인으로 한 자아탄력성이 높을

수록 대학생할 적응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 [23]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이존중감과 회복탄력성, 직무효능감이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긍정적인 정서함양을 통한 자신감, 자기 확신을 강화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의 직무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중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을 주제로 한 연구가 없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개념인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자기효능감의 개념으로 해석했을 때 앞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24]는 긍정심리자본 향상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대학생의 원만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이 시기의 긍정적인 원동력이 되는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 확립시키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면조사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인 현 시점에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치위생학 분야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과 학업성취도, 진로 의사결정, 전공만족도 등의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과 신입생의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낙관주의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의 대학교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신입생 291명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은 3.44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 요인은 희망이 3.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의 평균은 3.24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 요인은 대학환경적응이 3.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사회적응은 대학환경적응($r=0.825, p<.01$)과 정적 상관을 높게 가지고 있었고, 낙관주의는 자기효능감 ($r=0.718, p<.01$), 희망은 자기효능감($r=0.700, p<.01$), 복원력은 자기효능감($r=0.694, p<.01$)과 정적 상관을 높게 가지고 있었다. 학업적응은 대학환경적응($r=0.683, p<.01$)과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응($r=0.589, p<.01$), 개인정서적응은 대학 환경적응($r=0.451, p<.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3.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적응 중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주의($p<0.001$)와 자기효능감($p<0.001$)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4.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적응 중 개인정서 적응과 대학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주의($p<0.001$)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심리자본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낙관주의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cd=1520>
- [2] E. J Park & H. K Lee. (2016).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college dropout intention for freshmen in college : Focused on K-College. *Forum for youth culture*, 46, 91-11. DOI : 10.17854/ffyc.2016.04.46.91
- [3] J. J. Arnett.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4] R. W. Baker & B. Siryk.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DOI : 10.1037/0022-0167.31.2.179
- [5] J. H. Oh. (2016). *The Effects of Career Value and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on University Life Adap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Daejeon,

- [6] B. R. Cho & J. M. Lee. (2019). Effects of Undergraduate Students' Stress,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4), 1-11.
DOI : 10.14400/JDC.2019.17.4.001
- [7] M. E. Seligman.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 Free Press.
- [8] F. Luthans, B. J. Avolio, J. B. Avey & S. M. Norma. (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60(3), 541-572.
DOI : 10.1111/j.1744-6570.2007.00083
- [9] T. H. Moon. (2019). The relationship amo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control,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8(1), 225-36.
DOI : 10.17643/KJCE.2019.28.1.02.
- [10] J. H. O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4(10), 873-884.
DOI : 10.17643/KJCE.2019.28.1.02.
- [11] M. S. Chio, Y. H. Jang & H. K. Yun. (2014).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self-efficiency on the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2), 155-162.
DOI : 10.13065/jksdh.2014.14.2.155.
- [12] M. J. Kim. (2019).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avoidance coping styles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3), 353-360.
- [13] D. S. Lee & Y. D. Choi. (2010). A study 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organization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39(1), 1-28.
- [14] Y. J. Oh. (2017).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07-317.
DOI : 10.14400/JDC.2017.15.7.307.
- [15] Y. S. Kim & J. H. Lee. (2016). Influ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on emotional intellig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6(6), 919-929.
DOI : 10.13065/jksdh.2016.16.06.919.
- [16] Y. M. Kim. (2017).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Humanities, and Sociology*, 17(7), 309-323.
DOI : 10.14257/ajmahs.2017.17.07.309.
- [17] E. Jeong & M. R. Jung. (2018).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9), 309-317.
DOI : 10.14400/JDC.2018.16.309.
- [18] J. Y. Park. (2017). Effect of optimism and self-esteem on quality of lif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4(1), 171-182.
- [19] I. S. Jung. (2019). Convergenc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2), 55-64.
DOI : 10.22156/CS4SMB.2019.9.2.064.
- [20] J. I. Kim. (2018).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5), 253-262.
DOI : 10.5762/KAIS.2018.19.5.253.
- [21] M. R. Lee & H. S. Jeon. (2015). Personal types, ego-resilience,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2), 8861-8869.
DOI : 10.5762/KAIS.2015.16.12.8861.
- [22] H. K. Yun, M. S. Choi & J. H. Lee. (2014). The structural relationship that self-elasticity of student in dental hygienic influences study satisfaction and life adaptation of colle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5), 335-343.
DOI : 10.14400/JDC.2014.12.5.335.
- [23] J. Y. Kim. (2018).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resilience, and occupational self-efficac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269-276.
DOI : 10.15207/JKCS.2018.9.1.269.
- [24] Y. S. Jo. (2016). Development of program to improve the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f university student' and its effec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29-546.
DOI : 10.5762/KAIS.2016.17.4.529.

조 미 숙(Mi-Sook Cho)

[정회원]



- 2010년 2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석사)
- 2013년 2월 : 고신대학교 예방의학 전공 (의학박사)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전임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지역사회구강보건학
- E-Mail : cms4935@ch.ac.kr

박 정 현(Jung-Hyun Park)

[정회원]



- 2010년 8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석사)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박사)
- 2013년 3월 ~ 2018년 2월 :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과임상학, 치과교정학
- E-Mail : akrtla81@dhc.ac.kr

장 경 애(Kyeong-Ae Jang)

[정회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석사)
- 2011년 2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2012년 2월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전임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교육학
- E-Mail : jka@silla.ac.kr